

불안한 경기회복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경기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8%의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이어 80%를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 또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교양, 오락비, 외식비와 같은 선택적 소비 지출이 급증하여 소비심리의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아직 투자규모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월중 국내기계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를 나타내면서 작년 초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아직 침체상태에 있으나 국내 건설수주가 올 초 두 배나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중 상승세로 반전되었던 실업률은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올초 일시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가 수출 호조에 따라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경상수지 흑자 폭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다행히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상과 같이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지표는 높은 수출 증가와 내수 신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이나, 실업률의 반등, 경상수지 흑자 폭의 감소, 건설투자의 부진이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일부 경공업은 부진한 가운데 업종별 경기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30불을 치솟으면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유가상승은 원유 수입단가의 상승을 통해 곧바로 수입 증

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수출경쟁력 저하를 통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며 한편으로는 국내 물가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석유순수입국인 우리 나라는 기초에너지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61%에 이르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당국은 3월초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가격 인상요인을 세율인하를 통해 흡수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이 수입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유가상승이 가져오는 비용인상(Cost-push)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국은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불안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유가상승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가격 및 수출단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경상수지 적자의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에너지 가격체계와 조세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시장원리가 원활히 반영되도록 하여 수요관리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서민층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무튼 이제 막 궤도에 접어든 경기회복의 기세가 냉각되어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아직 경기과열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의 역점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분위기 진작과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는 이유는 지난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제 체질이 허약함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인을 찾아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

(이승명 수석연구위원 reem@hri.co.kr ☎ 3669-